

206.513A 민속학연구 1 3-3-0

Studies in Folklore 1

이 과목은 인류학의 한 분과로서의 민속학을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소개한다. 전통문화를 이루는 다양한 민속현상을 그 역사적 기원 및 지배문화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문헌 조사방법도 익힌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사회의 삶의 방식과 관련된 생업기술, 의·식·주·관·혼·상·제, 시장과 유통, 가족과 친족, 사법제도, 민속놀이, 민간신앙 등을 다루게 된다.

This course combines Korean folklore with its traditional culture. Students will understand a variety of folk phenomena in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s. They will also be exposed to the different investigative methods used to document such research. Specific topics will include: daily life, food, clothing and housing habits, ceremonial occasions, markets and trade, family and kinship, law, folk art, as well as the folk religion of a traditional society.

206.514A 박물관과 인류학 3-3-0

Museum and Anthropology

이 과목은 인류학박물관의 성격과 역사를 살펴보고, 물질문화를 수집하고, 보존하며, 전시하는 다양한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또한 박물관과 국가문화정책, 박물관과 소수민족문화, 전시의 방법과 박물관 이용자의 문화인식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타 문화들을 전시하고 재현하는 데 따르는 제반문제를 검토한다.

This course examines the character and history of anthropological museums, while teaching the diverse ways to collect, preserve, and exhibit material culture. In addition, it will study the problems related to the exhibition and presentation of other cultures, such as museum and state culture policy, museums and minority culture, as well as the cultural consciousness of museum visitors.

206.601B 가족과 친족연구 3-3-0

Studies in Family and Kinship

이 과목은 한 사회의 문화, 정치, 경제의 기본골격이라 할 수 있는 사회구조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는 과목이다. 사회구조론은 인류학의 가장 바탕이 되는 하위분야라 할 수 있는데, 이 과목에서는 가족과 친족제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사회제도와 구조들을 여러 사회의 사례로 충분히 살펴보고, 사회구조에 관한 다양한 인류학 내의 이론적 논의들을 점검한다. 본 강의는 세미나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Social structure is considered a fundamental frame for culture, politics, and economy in a given society.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investigate the basic subfields of Anthropology, which include various forms of social institutions and structures in different societies, as well as diverse theoretical issues of social structure.

206.602 언어인류학 3-3-0

Linguistic Anthropology

이 과목은 언어 및 의사소통을 인간 및 문화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언어인류학 분야에 대한 기초 과목이다.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언어 사용, 그리고 언어·사회·문화 간의 체계적인 상호관련성에 대한 중요 주제들을 탐구할 것이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ory seminar on the field of linguistic anthropology, the study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from the view point of man and culture. We will explore major topics on language use in sociocultural contexts and systematic interrelationships among language, society and culture.

206.603 생태인류학 3-3-0

Ecological Anthropology

이 과목은 환경과 자원 및 문화를 주제로 하는 생태인류학의 이론들을 소개하는 과목이다. 뿐만 아니라 응용생태인류학의 차원에서 다양한 사례연구들을 일별하고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문화적으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본 강의는 세미나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This seminar is an introduction to the theories of Ecological Anthropology concerning the understanding of environment, resources, and culture. The course begins with tracing the contours of various studies in terms of applied Ecological Anthropology. It then surveys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practical problems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resource exhaustion. This class will be conducted in a seminar style.

206.604 심리인류학 3-3-0

Psychological Anthropology

이 과목은 인류학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적 특성이나 인성이 그 사회와 문화의 특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한 의문을 전제로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적인 인류학에서 이루어져온 문화와 인성연구, 즉 다양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구성원들의 집단적인 인성과 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인류학 내의 연구들을 고찰하고, 심리학을 비롯한 여타의 인간심리에 대한 연구와 인류학에서의 심리연구를 비교·분석해보고, 특히 최근의 인류학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심리연구에 관한 이론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This course begins by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collectiv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r personal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iven society and culture. It continues with in-depth debates on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human beings. Topics will include: the overview of traditional studies on culture and personality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 between collective personality and culture; the comparison of anthropological studies and other disciplines, including human psychology, and, finally, the critique of the diverse theoretical currents in anthropological studies of psychology.

206.605 종교인류학 3-3-0

Anthropology of Religion

<종교인류학>은 다양한 사회에서 존재하는 종교현상, 즉 초자연적 존재와 힘, 그리고 그와 관련된 관념체계와 행위들을 대상으로 이를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이 과목은 종교적인 의례행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우주관, 신앙체계, 지식의 습득과정, 의미의 상징화과정 등을 심층적으로 살피게 되는 데, 이를 위해서 다양한 종교현상의 성격들을 고찰하고, 인류학 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종교연구의 관점과

학점구조는 "학점수-주당 강의시간-주당 실습시간"을 표시한다. 한 학기는 15주로 구성됨. (The first number means "credits"; the second number means "lecture hours" per week; and the final number means "laboratory hours" per week. 15 weeks make one semester.)

이론들을 논의하고, 종교가 어떤 형태로 문화와 상호관계를 가지며 또 종교운동처럼, 비종교적인 요소와 종교가 현실적으로 결합되어 어떻게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하게 된다.

This course aims at understanding religious phenomena in their cultural contexts, such as systems of ideas and behaviors associated with supernatural beings and forces. For this purpose, various forms of worldviews, belief systems, religious rituals, symbolic processes as well as religious movements will be examined. Students will learn various anthropological theories and perspectives regarding the nature of religious phenomena and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culture.

206.606 경제인류학 3-3-0

Economic Anthropology

이 과목은 경제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의 다양한 논의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원시경제와 농민경제 및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제3세계 도시경제의 비공식부문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생산, 분배, 소비에 이르는 경제과정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와 논의들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경제학의 개념과 이론들이 인류학적 분석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인류학의 연구결과가 경제학의 논의에 얼마나 공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This course will develop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anthropological theories and perspectives concerning human economic behavior and systems. Topics for investigation will include: anthropological literature on the factors and changes found in these characteristics, primitive and peasant economic systems, the urban informal sector in Third World economies as well as economic behaviors, processes and institutions found in advanced capitalist countries. Focus of discussion will be on the holistic interconnection between culture and economy.

206.623 인지인류학 3-3-0

Cognitive Anthropology

이 과목은 언어·문화·인지 간의 체계적인 상호관련성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특히 다양한 의미 영역의 민속구분법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검토함으로써, 언어가 반영하는 문화적 인지의 여러 중요한 양상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In this course, we will explore systematic interrelationships among language, culture and cognition. In particular, through examining the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of folk classification systems in various semantic domains, we will attempt to understand significant aspects of cultural cognition reflected in language.

206.624 사회언어학 3-3-0

Sociolinguistics

이 과목은 언어와 사회 간의 체계적인 상호관련성을 탐구하는 과목이다. 특히 사회적 맥락 속에서의 언어 사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그 목표로 할 것이다.

In this course, we will explore systematic interrelationships between language and society. In particular, we will attempt to understand basic frameworks of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focusing upon aspects of language use in social context.

206.628 한국문화연구 3-3-0

Studies in Korean Culture

이 과목은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한국문화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한국사회에 관한 국내외의 민족지적 연구들을 고찰하고, 한국문화의 특성을 논하는 이론적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현대 한국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올바른 문화적 시각의 기초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한국사회가 지니는 고유한 문화적 에토스와 보편적인 문화적 특성에 대해 검토한다.

This course takes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in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It includes critical review of the ethnographic literature on Korea, covering the traditional times to the contemporary period, as well as theoretical works which attempt to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ulture. Further emphasis will b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on East Asian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those peculiar to Korea.

206.630A 인류학과 식민주의 3-3-0

Anthropology and Colonialism

서구와 비서구간의 식민지 접촉이 초래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역사적·비교문화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거시적·역사적인 관점에서 식민화과정을 조망함과 더불어 지역수준에서 현지인이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연구한다. 문화제국주의, 토착적 문화의 변용과 지속, 문화적 저항운동 등의 주제를 다루며, 최근의 지구화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제기되는 '글로벌'문화와 지역문화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검토한다.

Social structure is considered a fundamental frame for culture, politics, and economy in a given society.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investigate the basic subfields of Anthropology, which include various forms of social institutions and structures in different societies, as well as diverse theoretical issues of social structure.

206.633 정치인류학 3-3-0

Political Anthropology

본 강의는 정치행위와 정치적 과정에 관한 이론 및 민족지적 연구의 소개에 초점을 맞춘다. 정치란 권력의 획득과 실천과정 및 제도에 관한 것이며, 권력이란 사회, 문화적으로 규정되고 형성되는 것이다. 즉 지배(지도)와 권위는 경제, 사회적 관계와 종교와 의례에 의한 상징으로 규정되고 실천되는 것이다. 이 실천은 어떤 차원에서건 '공동체' 및 공동체의 '이념'과 '상상의 현실'을 생산하기 위한 문화적 요소의 동원을 의미하며, 동시에 하나의 힘에 대한 대립되는 성향의 형성과 갈등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배와 저항, 국가와 사회, 규범과 전략, 구조와 개인 등의 갈등이 본 강의의 주요 단서가 된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족주의, 부국주의 등 국가와 민중의 담론, 권력과 국가의 상징과 의례 등을 민족지적 연구를 통한 비교학적 접근이 될 것이다.

This course will develop a cross-cultural perspective of diverse human political behavior and political systems. It examines such topics as the concept of power, the rela-

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socio-economic or symbolic-ideological practices, as well as various types of political discourse such as nationalism or tribalism. Students will discuss these topics with emphasis on the contradictory relationships between domination and resistance, state and society, norms and strategies as well as structure and individuals.

206.635A 역사인류학 3-3-0

Historical Anthropology

본 과목은 인류학과 역사학 간의 접촉을 시도하는 새로운 분야로서의 역사인류학의 방법론과 관점에 대해 살펴본다. 인류학에서 '역사'가 차지하는 의미를 재검토하고, 인류학의 핵심개념인 '문화', '사회'의 개념을 포함시킴으로써, 타자성(Otherness)의 문제를 공간적(사회)으로 뿐 아니라 시간적(역사)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근대성, 탈근대성, 탈오리엔탈리즘의 논의에서 제기되는 역사 인류학의 문제가 인류학에서의 문화해석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살펴 볼 것이다.

This course attempts to understand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methodologies of Historical Anthropology. Historical Anthropology, which particularly emphasizes the temporal aspect, ie. the historical aspect, of the question of Otherness in Anthropology, is a new subfield that bridges the two disciplines of Anthropology and History. The class will address such issues as modernity, postmodernity and post-Orientalism in order to recognize how the question of history is closely interrelated with the fundamental question of Anthropology.

206.636 도시인류학 3-3-0

Urban Anthropology

본 과목은 인간의 도시 생활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파악하는 인류학의 비교론적 안목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과목에서는 도시라는 공간적 실체 속에서의 생활이 인간의 행동 및 사고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인류학 및 인접 학문분야들에서 이루어진 이론적 및 민족지적 연구 성과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에 더하여, 도시인류학의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수강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본 과목에서는 수강생들로 하여금 각자 나름대로 한국의 도시 생활에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탐색적 현지조사 및 문헌 조사를 거쳐 작성한 연구계획서를 수업시간 중에 발표하고 토론하게 된다.

The course aims at understanding the diversities and unity of urban life in comparative perspective of anthropology. For this purpose, the course critically reviews those theoretical and ethnographic literature accumulated in anthropology and other related disciplines which deals with the question of how the life in the city as a specific type of spatial entity affects human behaviour and thought pattern. In addition, the course includes discussions of students' research proposals concerning Korean urban life, drawn up on the basis of pilot fieldwork and literature review, as a way of enhancing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of urban anthropology.

206.639B 생물인류학연구 3-3-0

Studies in Biological Anthropology

이 과목은 고대인류에서 현대인류에 이르기까지 인류를 전인간(holistic human being)으로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생문화적 개념(biocultural concept)을 도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인류의 근원과 다양성을 생문화적, 그리고 보다 객관적, 과학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고대 인골의 재복원을 위한 골학 입문, 둘째, 인류의 진화과정을 고고학입문을 통해 학습하며, 셋째, 고대 문화와 생태계가 생물학적 인류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biocultural concept needed for understanding the origins and diversities of mankind as holistic human beings. For this purpose, the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basic knowledge in osteology which deals with the restoration of fossil human bones. The class will also examine the various theoretical controversies related to the reconstruction of the evolutionary process of the human species as well as the effects of prehistoric ecology and culture upon human biology.

206.640A 중국의 사회와 문화연구 3-3-0

Studies in Chinese Society and Culture

본 과목에서는 중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중국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지만, 전통시대에 대한 고찰이 수반되어 야만 현대의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첫째, 전통시대의 중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사회주의혁명의 성공과 더불어 출범한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에 단행된 혁명적 정책들로 인해 어떤 부문이 변화했으며, 어떤 부문은 변화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정책은 또한 많은 변화를 야기했는데, 그러한 변화들이 마오쩌둥시대와 그 이전의 전통시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해본다. 본 강좌에서는 인류학적 연구성과들을 중심으로 하되,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등의 타학문분야의 연구성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This course tries to develop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hinese culture and society. Both traditional and modern aspects will be studied through critical reviews of anthropological, historical and sociological literature as well as writings from the field of Political Science. Students will examine literature which exhibits characteristics of Chinese culture and society during the traditional, Maoist, and post-Maoist periods. Discussion will be focused on continuity and change in cultural forms, functions and meaning within the different periods.

206.641 일본문화연구 3-3-0

Anthropology of Japan

하나의 사회문화체계로서의 일본문화의 성격과 일본문화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다양한 측면에서 일본문화의 각 영역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둘 것이다. 특히 일본의 사회구조, 농촌사회, 일에 대한 태도, 종교, 퍼스널리티, 공업화, 도시화, 기술의 발달 등이 이 과목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질 것이다. 본 강의는 세미나 형식으로 운영된다.

In this course, the students will gai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Japanese cultural characteristics through critical reviews of anthropological and other related literature. Emphasis will be laid on grasping, holis-

tically, the interconnections between different aspects of Japanese culture. Topics will include: family and kinship systems, class structure, characteristics of rural communities, religion, personality structure, work attitudes, technological development,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206.642 동남아문화연구 3-3-0

Anthropology of Southeast Asia

동남아의 다양한 종족집단과 인종, 종교와 의례, 가족과 친족 제도, 언어, 생활문화 전반에 대해 다루며, 전통적인 사회조직과 문화규범이 문화접촉과 근대화 과정을 통해 변화되는 측면을 살펴본다. 도서동남아와 대륙동남아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전통의 차이, 식민지화와 탈식민지화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 주목하여 동남아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주력한다.

This course attempts to understand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Southeast Asia using comparative perspectives. Topics to be covered will include: ethnic and linguistic composition, patterns of everyday life including religious beliefs and rituals, family and kinship systems, as well as social stratification, and socio-cultural changes that followed acculturation and modernization.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the differences in terms of cultural tradition between mainland and island Southeast Asia, as well as th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in terms of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colonization and de-colonization.

206.646 유럽문화연구 3-3-0

Anthropology of Europe

본 과목은 인류학 및 인접 학문분야들에서 이루어진 민족지적 연구성과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유럽이라는 지역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특성들을 인류학적 관점 및 방법론에 의거하여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과목에서 다루게 될 주제로는, 민족 및 언어에 따른 유럽의 분화 양상, 또한 가족 및 친족 관계, 젠더/계급/종족 관계, 지역공동체, 종교적 신앙 및 의례, 스포츠 등을 포함하는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들에서 나타나는 유럽인들의 행동 및 사고방식, 그리고 선진자본주의국가로서의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복지제도, 도시개발, 사회운동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현대 유럽의 새롭고도 독특한 양상으로서 유럽통합의 진전과 동유럽 사회들에서 전개되는 포스트사회주의적 이행에 관련된 문제들도 검토된다.

This course aims at understanding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Europe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rough the critical review of ethnographic literature accumulated in anthropology and other related disciplines. Topics covered include: ethnic and linguistic composition, patterns of behaviour and thought of European people manifest in various areas of everyday life including family and kinship, gender/class/ethnic relations, local community, religious beliefs and rituals, and sports, as well as those aspects of Europe as advanced capitalist societies including the sociocultural aspects of the welfare system, urban development, and social movement. Moreover,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the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as well as postsocialist transitions of East European countries as uniquely contemporary European phenomena.

206.650 의료인류학 3-3-0

Medical Anthropology

이 과목은 인간집단 구성원들의 건강을 목표로 하는 의료체계를 인류학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의료체계에서 질병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치유는 어떻게 하는가를 살피고, 건강과 질병에 관한 지식이 어떻게 문화적으로 구성되는가를 이해하고, 거시적인 권력관계와 사회제도가 질병의 사회적 생산에 어떻게 연관되며 현실적으로는 지역 사회, 국가, 국제사회의 차원에서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응용인류학의 차원에서 의료인류학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논의해본다.

This course aims at understanding diverse medical systems found in human societies. Lecture and discussion topics include: How illnesses are diagnosed and treated according to different medical systems? How the knowledge concerning health and illness are culturally constructed? How macro-level power relationships and social institutions are involved in the social production of illness? How medical anthropology can be applied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health policies on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206.701A 인류학연습 3-3-0

Seminar in Anthropology

이 과목은 인류학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적 흐름을 개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업에서는 인류학의 초기저작에서부터 현대의 최신 경향에 이르는 다양한 이론들을 대표적인 저작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이론적 흐름이 현대사회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지니는 의미에 대해 토론한다. 또한 각 주제에 해당하는 민족지적 연구를 다양하게 검토함으로써 이론이 실제 사회에 적용된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This seminar overviews diverse theoretical currents in Anthropology. By examining anthropological monographs and articles from the early stages of Anthropology, we will highlight the diverse theories that can be used to analyze modern society. Studying ethnographies also provide discussion opportunities on how anthropological theories and methodologies have changed over time.

206.803 대학원논문연구 3-3-0

Reading and Research

이 과목은 전공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논문작업을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보다 심층적인 세부전공에 대한 학습을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과목에서는 지도교수가 전공대학원생들을 담당하게 되며, 한 학기동안 수강생들은 자신의 논문주제와 관련한 학습계획을 담당교수와 상의하여 특정주제와 관련한 집중적인 reading과 강의, 토론, 면담 등을 병행하여 차후의 자신의 연구와 논문작업을 위한 철저한 준비작업을 하도록 한다. 이 과목은 S/U평가를 하게 된다.

This is an intensive course designed to help graduate students prepare their own theses through regular tutorial sessions with academic advisors. Themes, topics, texts and format of the course will vary according to individual students and academic advisors. Students are required to produce thesis proposals and intermittent progress reports and attend regular tutorial sessions. Students are evaluated on a Pass/ Failure (P/F) basis.

206.804 인류학이론사 3-3-0

History of Anthropological Theory

이 과목에서는 인류학의 다양한 학설들이 발전해 나온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지닌 특성과 인류학의 주요 개념이나 이론, 그리고 방법들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과목에서는 서구 학문에서 인류학이 하나의 분과학문으로서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피고, 이어 19세기 후반기를 풍미했던 진화주의의 이론과 방법론적 특성을 고찰한다. 다음에 20세기 전반기에 진화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전파주의, 기능주의, 역사적 특수주의 등의 관점을 대비적으로 고찰한다. 나아가 신진화주의, 구조주의, 민족과학, 행위이론, 네오마르크스주의, 해석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 20세기 중반기 이후 인류학의 주요 이론적 사조들에 대해 그 대표적 이론가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This course aims at enhancing, through a review of the historical process whereby the discipline of Anthropology has been developed,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Anthropology, including its developmental relationships with other disciplines as well as its major concepts, theories, and methods. For this purpose, the course will first examine the historical background needed to understand the rise of the discipline of Anthropology within Western human and social sciences. It will then examine the main proponents and arguments of evolutionism which dominated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after Anthropology was established as an academic discipline. The course will also examine the early 20th century reactions to Evolutionism such as Diffusionism, Functionalism, and Historical Particularism. Finally, the major theoretical paradigms that have arisen since the mid-20th century, including Neo-Evolutionism, Structuralism, Ethnoscience, the Action-Centered Approach, Neo-Marxism, the Interpretive Approach and Postmodernism, will also be examined.

206.806 음식의 인류학 3-3-0

Anthropology of Food

이 강의는 음식에 관한 사회인류학적 접근을 시도하며, 음식의 생산과 소비를 문화체계의 형성 및 실천의 장으로 설정하고 인간의 식생활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다; 음식과 사회적 관계, 식량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의 정치경제학, 계급, 성 및 권력과 음식, 음식소비의 의례와 상징, 세계화와 지역(민족) 정체성과 음식, 식사예절의 정치사회학, 문화변동과 식사관행의 변화, 건강담론과 음식소비의 유행, 과학기술체계와 음식의 발명 등.

This course will take a social anthropological approach to food and dietary behavior: it is not a survey of nutritional sciences. Topics to be covered will include: food as a cultural construction; social relations and boundaries through food exchange; the political economy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food; food symbolism and ideology; globalization and food industry; changing dietary patterns; etiquette and cultural regulations related to food; body image and foodways; standardization of food preferences; science and the invention of new foods, etc.

206.807 세계화와 지역문화 3-3-0

Globalization and Local Cultures

이 과목에서는 현대 세계의 가장 중요한 변화 경향 가운데 하나인 세계화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인류학적 이론과 방법론을 학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세계화를 개념화하고 세계화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서 나타나는 상이한 이론적 입장들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인류학 및 인접 학문들에서 이루어져 온 사례연구들을 통해서 세계화와 지역문화와의 상호관계를 살펴본다. 특히 여기서는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세계화에 따른 지역문화들의 동질화 과정에 주목하는 한편으로, 세계 각처의 다양한 지역문화들이 각기 나름의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데서 생겨나고 있는 문화변동의 양상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인다.

This course aims at understanding various anthropological theories and methodologies devised to grasp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which is no doubt one of the most characteristic trends in the contemporary world. For this purpose, the course first examines competing theoretical perspectives regarding how to conceptualize globalization and analyze its causes. The course then consider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globalization and local cultures through critical reviews of case study literature within anthropological and related disciplines. It will focus, on the one hand, upon the homogenization of local cultures following globalization and, on the other hand, the changes which stem from the efforts on the part of local cultures to maintain their respective distinctive identities.

206.809 성의 인류학 3-3-0

Anthropology of Gender

성과 성차에 대한 문화적 범주를 비교문화적 시각에서 검토함으로써, 남성과 여성간의 생물학적 차이가 문화적 차이로 전환되는 다양한 방식들을 제시한다. 성과 성차에 대한 담론과 실천을 각 문화의 구체적인 역사적이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는 데, 특히 친족관계, 경제적 관계, 권력관계, 종교적-이데올로기적 관념들이 남녀 간의 관계와 성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상호연관되는 측면에 주목한다.

This course take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of sexuality and gender, addressing the diverse ways in which biological differences between the sexes transform into cultural ones. Discussion topics include: sexuality and gender within concrete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s of particular societ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relations of the sexes and gender identity, kin relations, economic relations, power relations, and religious-ideological ideas.

206.810 사회분화론 3-3-0

Social Differentiation

이 과목은 사회의 조직화 현상, 즉 사회구성원들이 상이한 사회집단들로의 분화되고 그렇게 분화된 사회집단들 사이에 흔히 불평등한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현상을 인류학적인 관점과 방법론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인류학 및 인접 학문분야에서의 연구성과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기술수준이 단순하고 인구상 소규모인 수렵채집민 사회로부터 현대의 대규모 복합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유형들 속에서 나타나는 연령, 성별, 친족관계, 사회계층, 직업, 종교,

정치적 입장, 민족, 인종 등 등에 따른 사회집단의 분화와 불평 등의 양상을 총체적 상호연관 속에서 고찰하고, 불평등에서 파생하는 제반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또한 학생들 각자가 현대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집단 분화와 불평 등의 양상 중 한 가지를 선정하여 간단한 탐색 조사에 기초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보고 이를 토론품으로써 그런 현상들을 연구하기 위한 적절한 인류학적 방법론은 어떤 것일지를 탐색해 본다.

This course aims at teaching the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and methodologies involved in understanding social differentiation, i.e. the universal differentiation of the members of a society into different social groups and the social inequality which often obtains between different social groups. For this purpose, the course reviews anthropological and related literature concerning social differentiation found in wide-ranging types of society from primitive hunter-gatherer to modern complex societies based upon age, gender, kinship, social stratification, religion, occupation, political standpoint, nation, and/or race, etc. and discusses the ways to solve the various social problems resulting therefrom. In addition, the course includes discussions of students' research proposals drawn up on the basis of pilot fieldwork as well as literature review.

206.811B 스포츠와 여가의 인류학 3-3-0

Anthropology of Sport and Leisure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신체적 놀이로서의 스포츠를 행하는 것은 모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하지만, 인간의 스포츠 및 여가 활동들의 구체적 형식과 내용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역사적으로도 커다란 변화를 거쳐 왔다. 특히 현대의 후기산업사회들에서 스포츠 및 여가 활동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지나는 대단히 높은 비중을 지니는 삶의 영역으로 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스포츠 및 여가는 당연히 인류학의 연구주제 중의 하나가 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스포츠와 여가는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인류학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인류학 및 인접 학문 분야들에서 이루어진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성과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스포츠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인류학적 관점을 학습함을 목표로 삼는다. 나아가, 수강생들 각자가 현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스포츠와 여가의 문화적 양상들에 대한 간단한 현지조사 실습에 근거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발표하고 토론해 봄으로써, 스포츠와 여가 현상에 접근하는 인류학의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인식도 심화시키고자 한다.

It is an universal feature of human societies that people spend their leisure time doing 'sport' in the sense of bodily play. But specific forms and contents of sport and leisure activities are not only quite diverse according to the sociocultural contexts but they also have been undergoing tremendous historical changes over time.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postindustrial society, sport and leisure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domains of everyday life. In this regard, sport and leisure deserves full anthropological attention. And yet, it is only quite recently that anthropologists has begun to pay serious attention to sport and leisure. This course, therefore, aims at grasping the appropriate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through critically reviewing theoretical as well as empirical literature accumulated in an-

thropology and related disciplines. Furthermore, the course includes discussions of students' research proposals concerning contemporary Korean sport and leisure life, drawn up on the basis of pilot fieldwork and literature review, as a way of enhancing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anthropological approach to sport and leisure.

206.813B 축제와 의례의 인류학 3-3-0

Anthropology of Ritual and Festival

이 과목은 축제와 의례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성과를 검토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목에서는 축제와 의례를 다룬 인류학자와 그들의 이론과 구체적 민족지, 그 성과를 체계적이고 비판적으로 읽어 본다. 이 과목을 통해서 수강생들은 의례와 축제라는 현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개념과 이론을 알게 될 것이며, 구체적인 현상에 대한 분석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다.

This seminar aims to discuss the anthropological studies on rituals and festivals. This seminar deals systematically and critically with the theory and ethnography of famous anthropologists who have dealt with the ritual and festival. The students will get the concepts and theories will help their analysing and explaining of the ritual and festival more effectively. And they will have experiences of the analysis of the concrete phenomenon.

206.814A 러시아 문화 연구 3-3-0

Anthropology of Russia

이 수업에서는 시베리아를 포함한 러시아 문화에 대한 여러 논문들이 비판적으로 검토되며, 러시아 문화를 인류학적으로 이해,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대한 영토를 가진 러시아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민족문제에 대한 이해는 이 수업의 중요한 테마 중의 하나이다. 수업에서는 이외에도 가족과 친족, 종교, 사회주의, 물질문화 등을 주제로 선택하여 러시아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In this seminar, various articles and books from Russian culture will be examined from a critical viewpoint. The course aims at understanding and explaining Russian culture. There is a great number of diversified nations and ethnic groups in such an immense state as Russia, so the understanding of national problems is one of the important themes in this seminar. Family and kinship, religion, socialism, material culture, etc. will also be discussed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Russian society and culture.

206.816 미국의 사회와 문화연구 3-3-0

Studies in American Society and Culture

미국사회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함으로써, 현대 미국의 문화적 특징들을 살펴본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된 미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힘은 어떤 것인지, 동시에 어떻게 미국 사회의 내부적 다양성이 미국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지에 이 강좌의 중점이 놓인다. 이 강좌는 문화인류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미국사회의 바탕에 있는 미국적인 사상, 현대 미국사회의 문화적 특징 및 사회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xamine the cultural features of the U. S. society, through an anthropological

lens. Some of the questions this course will explore include: What makes U. S., a society that boasts a remarkable internal diversity, still remain a cultural unit? How is the diversity constructed and manifested in everyday life of Americans?

206.817 교육의 인류학 3-3-0

Anthropology of Education

이 강좌는 학습과 놀이, 영장류의 학습, 문화전승과 학습 등의 이론적인 쟁점들을 검토하는 동시에, 교육과 문화변동, 학교 교육과 사회계층, 교육과 문화자본 등의 주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학습이 인간문화에서 보편적으로 차지하는 중요성과 더불어 교육활동이 조직되는 방식이 각 사회마다 다르다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인간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의 쟁점 역시 다루게 된다.

This course explore the cultural nature of learning, by examining primate lea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and play, and cultural organization of learning. Also included are issues related to schooling in modern society, such as an interlocking between social class and schooling.

206.818 인간진화심리연구 3-3-0

Studies in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본 강좌에서는 최근 진화심리학과 행위생태학에서 시도하고 있는 진화생물학적 인간행동연구의 이론적 내용과 연구사례를 분석하여 인간문화연구에 이런 접근법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통찰력은 무엇이며 또한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평가한다. 진화심리학은 인간 두뇌의 정보처리 방식에 의해 발생하는 문화적 현상의 규칙성과 공간적 시간적 조건의 차이에 의한 변이발생이라는 각도에서 문화와 생물학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에 비해 행위생태학은 최적화 가설을 가지고 특정 생태적 조건에서 특정 사회적 행동의 표현형이 발현할 빈도를 예측하려는 접근법이다.

This course is an examination of human behavior and culture in evolutionary perspective.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demonstrate how evolutionary theory, evolutionary psychology, and human behavioral ecology can be applied to explaining human behavior, mind, and culture. Topics include kinship, cooperation, life history theory, parenting, mating, and the evolution of cognition, among other things.

206.819 전쟁과 인류학 3-3-0

Anthropology and War

본 과목은 전쟁과 관련된 문화의 문제를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한다. 하나는 戰爭文化論이다. 전쟁에 내재된 문화적인 측면 즉 전쟁 속의 삶에 대한 인류학적 분석을 내용으로 함에 있어서 고대사회, 원시사회, 근대사회, 현대사회의 전쟁사례들 속에서 발견되는 전쟁문화론에 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戰時人類學이다. 전쟁에 가담한 인류학적인 활동, 즉 인류학자들의 전쟁협력과 그에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내용이다. 이차대전 중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의 인류학자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정도로 전쟁행위에 가담하였는가.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남겨진 여러 가지의 전쟁과정 속에서 인류학자들의 활동에 대하여 논의해본다.

War as a facet of culture in wide sense could be a critical subject for anthropology. This course tries to understand an anthropological aspect of war as a general

purpose. Specifically, this aspect could be divided into two subjects: 1) cultural aspect of war can be pursued by using historical cases of war, for example, wars during ancient and primitive ones as well as modern styles of war, for example, the second world war and wars during the cold-war era. 2) wartime anthropology can be another subject for this course. Anthropologists' contribution to wars in terms of national and military organization should be concerned in the realm of human rights and academic ethics.

206.820 초국가적 이주와 디아스포라 3-3-0

Transnational Migration and Diaspora

이 수업에서는 초국가적 이주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국경을 넘는 이주현상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도모한다. 다루어질 주요 주제는 초국가적 이주의 전반적 개요, 이론적 개관, 이주의 배경과 과정, 이주와 사회조직, 이주와 정체성, 젠더(여성)와 이주, 초국가적 이주와 시민권, 디아스포라 귀환이주 등이다.

This course aims at academic understanding of the ever expanding migration crossing the national borders. Major themes and issues include overview of the transnational migration, theoretical review of transnationalism, backgrounds and processes of migration, transnational migration and social organization, ethnic and national identities, gender and migration, issues of citizenship, diasporic return migration, and so forth.

206.821A 공동체 민속과 문화 연구 3-3-0

Anthropology of Community Folklore and Culture

이 과목에서는 공동체의 민속과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다. 전통적으로 내려 온 공동체의 민속과 문화뿐만 아니라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공동체 민속과 문화도 세미나의 토론 대상이며, 이를 좀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과 이론에 대해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함께 토론해 본다. 이 과목을 통해 공동체 민속과 문화에 대한 기존 이론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문화에 대한 혜안도 얻게 될 것이다.

This seminar deals with anthropological studies on the community folklore and culture critically. In this seminar will be discussed not only the traditional community folklore and culture, but the new folklore and culture of the community in the world also. Through this seminar the student will get the knowledge about the established theory and concept. In addition they will see the future of the community.

206.822 비교문화연구 3-3-0

Seminar in Cross-Cultural Studies

이 과목은 인류학의 바탕이라 할 수 있는 비교문화연구 이론을 배우고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과정에는 HRAF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문화 간 비교연구를 수행해보고 데이터 활용방식을 익히는 것도 포함된다. 본 강의는 세미나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This seminar aims at theoretical review and case anal-

ysis of cross cultural studies, which is important ground in Anthropology. Students will practice various cross-cultural studies using HRAF database, too. This class will be conducted in a seminar style.

206.823 한국의 언어문화 3-3-0

Linguaculture of Korea

이 과목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이고 특징적인 언어문화에 대한 탐구를 목표로 한다. 한국 언어문화의 주요 특성 및 그것의 지역적, 사회적 변이상을 발견, 분석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explore the traditional and characteristic linguaculture in Korean society. We will discover and analyze the main characteristics and the regional and social variation of Korean linguaculture.